

[보도자료] 쿠팡풀필먼트서비스, 장애인 직원들과 '창덕궁 숲 여행'

2024. 4. 21.

- 재택근무하는 CFS 장애인 직원들, 서울 창덕궁 봄 나들이 동료들과 소통의 시간
- 다양성·형평성·포용성 가치 실현하는 쿠팡 기업문화 장애인 직원 지속 채용



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8일,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봄나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.

2024. 4. 21. 서울 - 쿠팡풀필먼트서비스(이하 CFS)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특별한 봄 소풍을 떠났다.

CFS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장애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'창덕궁 숲 여행'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. 이날 활동에는 라이언 브라운(Ryan Brown), 정종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30명이 함께 했다.



정중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무부문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.

CFS는 서울국유림관리소 및 창덕궁관리소와 함께 장애인 직원들을 공궐로 초청해 심을 선물하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. CFS 임직원들은 창덕궁 숲 해설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정전, 희정당, 낙선재 등 창덕궁 내 주요 건물을 둘러보았다. 또 창덕궁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회화나무, 뽕나무, 다래나무, 향나무 등 고목이 품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

CFS 채용 코디네이션 업무 담당인 김혜미 씨는 “창덕궁의 꽃과 나무를 둘러보며 숲속 시간 여행을 한 기분”이라며 “평소에 출퇴근 어려움 없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서 업무 만족도가 높는데, 동료들과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는 오늘 같은 시간도 참 좋다”고 전했다.



라이언 브라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EHS부문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직원들과 함께 숲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.

CFS 라이언 브라운 대표이사는 “한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국가유산이자 조선 5대 궁궐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창덕궁에서 우리 임직원들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”며 “우리 직원들은 고객층만큼이나 다양하고, 장애인 동료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포용하는 CFS 문화가 자랑스럽다”고 말했다.



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8일,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숲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는 중이다.

한편, CFS는 장애인 일자리 개발과 교육 전담 부서인 Diversity & Inclusion(포용경영) 팀을 운영하고 있다. 포용경영 팀은 장애인 구직자들이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얻고,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업무에 도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현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CFS 장애인 직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를 한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